

농어촌공사, 오봉저수지 저수율 방어 온힘

✎ 황선우 | ㉸ 승인 2025.08.29 | 13면

단수 기간 확대 등 가뭄 선제대응
농업용수 제한 560만t 이상 절약
간이 양수장 설치 물 확보 전력

강릉시가 역대급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가 강릉 지역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농업용수 제한 급수를 시작해 저수율 25% 이하부터는 단수 기간을 7일로 늘렸으며, 15% 이하부터는 그 기간을 10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제한 급수로 절약한 용수는 560만t 이상으로, 28일 기준 잔여 저수량(228만t)의 두 배가 넘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하락 방어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를 기록, 연일 최저치로 내려 앉아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강릉지사는 대체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수지 하류 정수지에 일 3000t 공급이 가능한 간이 양수장을 긴급 설치해 운영 중이고, 강릉 시 협조를 받아 성산면 구산보 인근에 수중펌프 2대를 설치해 하루 1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구정면 어단리에 기존 설치된 간이 양수장을 활용해 동막저수지 물을 오봉저수지 수로에 보충 급수 중이다. 더불어 칠성저수지 용수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봉저수지 수로 연결 작업도 마친 상태다.

비 영농기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천저수지 용수 활용도 강릉시와 협의 중이다. 농업인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용수 절약 홍보 현수막 100장을 긴급 제작해 오봉저수지 수혜 지역에 게시했다.

이형섭 지사장은 "오봉저수지 용수 절약을 위해 농업용수 대체 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물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기자 woo6745@kado.net



황선우